

### 3. 지주 및 소작실태

#### 1) 소작형태와 자작·소작인수

일제시대 지주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뿐 아니라, 생산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까지 수취하는 전(前) 자본제적 기생지주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병작과 지주·임차인이 반분하는 토지임차제도가 있었다. 소작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생겼고 일본에서 발달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침략기에 관용어로 사용되다가 일반화되어 고치기 어렵게 되었다. 직접생산자인 소작농의 성격은 시대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일제시대 소작농은 신분적으로 양인 출신이었으며, 경제 외적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분계층이었다.<sup>1)</sup> 1920년대에 농업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며,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 자작농가는 52만 9,000호였는데, 1926년에는 약 52만 6,000호로 감소하였다. 한편, 소작농의 경우 1920년에 108만 3,000호였는데, 1926년에는 11만 호가 증가하였고, 1929년에는 경지면적의 50% 이상이 소작지였다. 전남의 농지와 농지형태별 농가호수를 보면 1928년 지주수는 6,446명이었으며, 자작농은 4만 256명, 자작 겸 소작농은 12만 1,109명, 소작 14만 4,896명, 화전민 2,311명으로 조사되었다.

순천의 경우 1928년 지주 323호, 자작 749호, 자작 겸 소작 33.8%인 6,373호, 소작 60.3%인 1만 1,294호, 화전민 112호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33년의 경우를 보면 지주 265인으로 5년 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자작농은 1,182호로 증가하였으며, 자작 겸 소작농은 24.2%인 4,514호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작농은 60.3%에서 무려 67.0%인 1만 2,625호로 전남의 평균 46%보다 상당히 높고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순천의 토지소유 형태별 호수

(단위 : 호)

구분 지역	지주		자작	소작		화전민		계
	지주(갑)	지주(을)		자작겸소작	소작	겸전화민	순전화민	
1928 전남	806 (0.3)	5,640 (1.8)	40,256 (12.8)	121,109 (38.4)	144,896 (46.0)	1,653 (0.5)	658 (0.2)	315,018 (100.0)
	100 (0.5)	223 (1.2)	749 (4.0)	6,373 (33.8)	11,294 (59.9)	112 (0.6)	-	18,851 (100.0)
1933 순천	105 (0.6)	160 (0.9)	1,182 (6.4)	4,514 (24.2)	12,625 (67.9)	-	-	18,586 (100.0)

비고 : 지주(갑)은 불경작지주(不耕作地主), 지주(을)은 수작지주(手作地主).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929·1934 ; 원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 김병화, 『한국농업경영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4~7쪽.